

대장암을 예방합시다 (1)

대장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암보다도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식생활의 서구화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대장암은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수술)를 받기만 하면, 위암이나 폐암과는 달리 거의 치료가 가능하다. 즉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수술로써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암이다.

치질 같은 증상은 없는가?

대장은 길이가 약 1.5m나 되는 긴 장기로써, 암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와 발생하기 어려운 장소가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직장, 그 다음이 S상결장, 상행결장 순이다.

항문 부위의 암

초기에 나타나는 주된 증상은 암으로 인한 출혈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다. 보통 출혈이 있어도, 암이 작은 경우는 미량이며 항문에 가까운 직장이나 S상 결장에 암이 발생했을 때에는 변의 바깥쪽에 실을 늘어놓은 것같은 붉은 혈액이 묻어 나오는 증상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작은 암에서도 변이 굳어지기 때문에 암부위의 표면을 넘어서 혈액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통증이나 가려움도 없고 게다가 스스로 치질이라고 생각하고는 수치심 때문에 6개월이나 1년간 방치해 두고 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커지게 되면 변이 배설될 때 혈흔이나 점액이 나오게 된다. 그때서야 당황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장의 상부(결장)에서는

대장의 윗부분 결장의 암에서는 약간의 출혈을 하더라도 혈액의 붉은 색은 소멸되고 변 가운데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 이와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관찰이 필요하므로 암이 진전되어서 출혈이 많아졌을 때에야 비로소 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빈혈이 있다든가 장의 내장이 좁아져서 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한다든가 복부팽만감이나 복통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변비가 있었던 사람이 변에 피가 섞여나와서 의사를 찾아와 검사를 받고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㉞

